

## 배우 박소담, 한국 공연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한국의 공연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명예홍보대사로 배우 박소담을 7일 임명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박소담은 7일 '웹툰대 학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3편의 홍보영상에 출연해 한국의 공연 관광, 대학로, '2021 웹툰대 학로' 축제 등을 세계에 소개한다.



## 최연소 女팀장, 육아휴직 후 물류창고로...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 부당 인사 의혹 제기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흥원식 회장

불가리스 논란부터 매각 불발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부당 인사 의혹에 휘말렸다.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한 직 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최씨는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가 통보 없이 자신을 보직 해임했으며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이런 부당한 인사에 흥 회장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흥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뽕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아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려면 그런 게 되게",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 게 선상을 걸이라 그 얘기가.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상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으로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성원 기자 jay@donga.com

## 이통3사 '지구 건강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 전자청구서 이용률 높여 온실가스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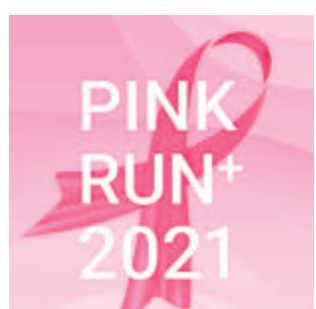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하기 위해 전자청구서 이용 확산을 통한 '지구 건강 탄소 다이어트'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이동통신

이용 고객의 전자청구서 이용률을 높여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배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7일부터 3주 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동통신3사와 KAIT는 '지구 건강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를 주제로 전자청구서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환경보호 효과와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알린다. 또한 전자청구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부모님 등 가족의 전자청구서 신청 돕기 등을 장려함으로써 이동통신 고객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할 방침이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 SNS에 캠페인 포스터 등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2050명에게 머그컵 교환 쿠폰 등을 제공한다.

김병근 기자

## 아모레퍼시픽, '핑크런 플러스' 대회 참가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이 '2021 핑크런 플러스' 하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방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달리기 축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열린다. 운동 이력 기록 앱인 '스트라바'에서 핑크런 플러스 챌린지를 선택한 뒤 10월 11~17일 중 최소 5km 이상 달린 후 인증하면 된다. 8일부터 핑크런 공식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만 원의 참가비는 한국 유방건강재단을 통해 전액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의 수술치료비 지원 등에 쓰인다.

민정희 기자 mythuki@donga.com

## 현대차그룹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독보적 수소기술 선보여

# 트레일러 드론·3세대 수소연료전지 최초 공개

"수소에너지는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쓰도록 하겠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그룹은 7일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 글로벌 온라인 행사에서 '수소비전 2040'을 선언하며, 수소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새로운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모빌리티의 실체를 대거 공개했다. 또한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최초로 상용차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정의선 회장은 "수소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내놓을 모든 상용 신모델은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고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격과 부피는 낮추고 내구성과 출력을 크게 올린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의선 회장, '수소비전 2040' 선언 상용차 신모델, 친환경차로 출시 트램·UAM 등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드론+방수총 '레스큐 드론'도 선보

### ●2028년까지 상용차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2028년까지 이미 출시된 모델을 포함한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대형 트럭, 버스 등 모든 상용차 신모델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출시해 배출가스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내수 상용차 시장에서만 연간 20만톤 이상의 수소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앞세워 연 40만대에 이르는 유럽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2030년 전 세계 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상용차 시장도 공략한다. 이를 위해 전장 5~7m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PBV(목적기반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향후 상용차 부문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결합해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트레일러 드론' 첫 공개

현대차그룹은 장거리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인 '트레일러 드론'을 이날 최초로 공개했다.

트레일러 드론은 수소연료전지 및 완전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2대의 '이-보기(e-Bogie, 열차 하단의 바퀴가 달린 차대)' 위에 트레일러가 얹혀져 있는 신개념 운송 모빌리티다.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장거리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인 '트레일러 드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3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100kW급, 200kW급)

3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2023년 출시 예정)의 시제품인 100kW급과 200kW급 연료전지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가격은 낮추고 출력과 내구성은 높은 것이 특징이다.

100kW급 연료전지시스템은 넥쏘에 적용된 2세대 연료전지시스템에 비해 부피를 30% 줄였다. 상용차용으로 개발 중인 200kW급 연료전지시스템은 넥쏘 시스템과 비교해 출력은 2배 정도 강화하고, 내구성도 2배~3배 높인다.

3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의 가격은 지금보다 50% 이상 낮출 계획이다. 2030년경에는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은 전력 소모량이 큰 대형 선박, 기차, 건물 등에 공급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될 '플랫형 연료전지시스템'도 선보였다. 두께가 25cm 정도에 불과해 향후 PBV, MPV(다목적 차량), 버스, 트램, 소형 선박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정의선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를 자동차 이외의 모빌리티 및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도 적용하는 등 미래 비즈니스 영역을 지속해서 확장하겠다"며 "트램, 기차, 선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이동수단뿐 아니라 주택, 빌딩, 공장, 발전소 등 일상과 산업 전반에

연료전지를 적용해 전 세계적인 수소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성능 수소연료전지차 '비전 FK' 공개

고성능 수소연료전지차 '비전 FK'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연료전지와 고성능 PE 시스템(Power Electric System)을 결합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목표는 600km에 달한다. 출력은 500kW 이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미만으로 수소차로도 고성능차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차량이다.

▲고성능 수소연료전지차 '비전 FK'

수소연료전지 이-보기에 비해 드론과 소방용 방수총을 결합한 모빌리티인 '레스큐 드론'도 선보였다. 드론을 띄워 재난현장을 촬영하면서 방수총을 가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한다. 원격주행과 자율주행이 모두 가능하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450~500km 정도다.

이동형 수소충전소 'H 무빙 스테이션'도 공개했다. 수소충전소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나 충전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투입돼 수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은 "수소는 인류가 환경재앙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강력한 솔루션 중 하나임이 확실하다"며 "현대차그룹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수소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SK텔레콤, 신개념 구독 플랫폼 서비스 'T우주' 캠페인 진행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슬로건 담아 아마존·스타벅스·배민 등 구독 제공

SK텔레콤이 최근 론칭한 신개념 구독 플랫폼 서비스 'T우주'(사진)의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T우주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구독 상품을 모은 새로운 서비스다. SK텔레콤 이용자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이용자도 서비스를 자유롭게 만나 볼 수 있다.

신규 광고 캠페인은 SK텔레콤 구독 플랫폼의 대표 특징인 '우주적' 스케일의 탄생과 다양한 구독 상품 집합을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라는 슬로건으로 담았다. 우주라는 브랜드명처럼 대한민국 구독 비

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SK텔레콤의 도전 의지도 반영했다.

총 2편으로 제작된 이번 캠페인은 큰 스케일과 몰입감을 선보인다. 먼저 론칭 편은 T우주의 탄생을 알린다. 일상에 지쳐 갈 때쯤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주변의 구독 가능한 상품이 일제히 우주로 '발사'되는 T우주의 탄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우주패스 편을 통해서도 아마존, 구글, 스타벅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11번가, 이마트, 배달의 민족, 파리바게트, 웨이브 등 국내 유명 브랜드 및 다양한 소상공인의 구독 혜택 패키지인 '우주패스' 상품을 '우주'라는 스토리에 어울리도록 긴장감 넘치

게 전달했다. 두 편의 광고 캠페인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규모감 있는 영상과 함께 구독 브랜드 상품을 위트 있게 묘사했다.

예회자 SK텔레콤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그룹장은 "T우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우주 파트너'사들을 조화롭게 노출하는 이른바 '상생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T우주 서비스 상품인 우주패스는 'All'과 'Mini'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주패스 All은 아마존 배송비 무료 및 1만 원 할인과 11번가 3000포인트 혜택, 구글원 클라우



드 100기가바이트를 기본 제공하고, T우주 구독 상품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월 구독료는 9900원이다. 우주패스 mini는 All 서비스와 동일한 아마존, 11번가 혜택이 제공되며, 구글원 또는 웨이브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월 구독료는 월 4900원이다. SK텔레콤은 론칭 기념으로 가입시점으로부터 한 달간 우주패스 All은 1000원, 우주패스 mini는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